

# 방산육성 기본계획 기반 군수품(군용차량) 생산량 증진 방안 연구

이 범 구<sup>\*1)</sup> · 이 석 회<sup>1)</sup> · 계 중 읊<sup>2)</sup> · 이 춘 범<sup>3)</sup> · 정 도 현<sup>3)</sup> · 이 천 수<sup>4)</sup>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실<sup>1)</sup>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로봇인지시스템연구부 ·  
자동차부품연구원 기술연구본부<sup>2)</sup> ·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운영실<sup>4)</sup>

## Study on Increase the Production of Materiel(Military Vehicles) based 'Basic Plan for Defense Industry Promotion'

Bumkoo Lee<sup>\*1)</sup> · Sukhee Lee<sup>1)</sup> · Joongeup Kye<sup>2)</sup> · Chunbeom Lee<sup>3)</sup> · Dohyun Jung<sup>3)</sup> · Cheonsoo Lee<sup>4)</sup>

<sup>1)</sup>Planning & Coordination Bureau,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3 Yongsango-gil, Yongsan-gu, Seoul 140-833, Korea

<sup>2)</sup>Robot / Cognitive System Research Departmen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218 Gajeong-ro, Yuseong-gu, Daejeon 305-700, Korea

<sup>3)</sup>R&D Division,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303 Pungse-ro, Pungse-myeon, Dongnam-gu, Cheonan-si, Chungnam 330-912, Korea

<sup>4)</sup>Technology Planning Operation Department,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Korea Economic Daily News Bldg 5F, 463 Chungpa-ro, Jung-gu, Seoul 130-871, Korea

(Received 29 October 2013 / Revised 11 January 2014 / Accepted 3 February 2014)

**Abstract** : There are many type vehicles in army. They are jeep and truck by basic type. Recently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new conceptual military vehicles. And they try for export of those military vehicles to another countries. Also Korea Army is developing military tactical and combat vehicles, and considering various necessary factors for export. But as easing the cold war system tension and reducing of defense budget, decrease in quantity of military vehicles. We think this trend is accelerative. Therefore Government(Military) and defense industry make every effort to increasing sales and productions. In this study, I'll inquire '2013~2017 basic plan for defense industry promotion' for strengthen the power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and then suggest the increasing method for productions of military vehicles.

**Key words** : Military vehicle(군용차량), Tactical vehicle(전술차량), Combat vehicle(전투차량), Materiel production (군수품 생산량),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 1. 서 론

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지프와 트럭을 기본형으로 운용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개조하여 각각의 무기체계를 탑재 또는 적재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명중시 경향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정밀무기체계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심화와 더불어 작전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용차량은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방탄능력과 차량의 우수한 성능이 절실히 요구되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차량은 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차량들은 60~70년대 미국의 군용차량을 국내에서 모방 생산하여 운용하다가 몇 차례에 걸쳐 엔진 등 일부 구성품을 성능 개량해서 운용<sup>1)</sup>하고 있

\*A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KSAE 2013 Annual Conference and Exhibition

\*Corresponding author, E-mail: how055@naver.com

나, 지난 2003년과 2010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 시에는 군용차량을 별도로 성능개량·구매하여 배치해야 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용차량은 방탄성능과 무기체계의 원활한 탑재운용, 우수한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운용자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국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군용차량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군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군도 군용차량을 개발하면서 개발단계부터 수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각국의 국방비가 감소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소요량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군)는 물론 군용차량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사업 이익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선진화와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생산량 증가를 통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군용차량 생산량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군용차량 현황<sup>2)</sup>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나름대로의 용도와 운용환경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상 표준차량과 CM6614,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차륜형 전투차량, 아프가니스탄 파병 오쉬노 부대의 지뢰방호차량에 대해 알아본다.<sup>3)</sup>

### 2.1 1/4톤 지휘차 (K131)

1/4톤 지휘용은 1998년 민수용 차량을 군 운용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

민수용 차량과 주요 차이점은 비포장로와 야지,

경사지에서 장애물 극복능력을 갖추고 동계 적설시 운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장에서 적과의 교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sup>

향후 개발되는 차량은 방탄능력과 자체 고장 진단기능 등 최신기술을 반영할 예정이다.

### 2.2 2 1/2톤 카고 (K511A1)

2 1/2톤 트럭은 인원 및 화물 수송용으로 운용되며, 차체를 기본 모델로 적재함을 개조하여 급수용, 급유용, 정비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야지와 산악지에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엔진 출력 등 부분적으로 성능을 개량하였다.

### 2.3 5/4톤 카고 (K311A1)

5/4톤 트럭은 1980년 미군트럭 M715를 모방한 K311을 2000년부터 엔진 출력 향상 등 성능을 개량하여 운용하고 있다.<sup>5)</sup>

### 2.4 CM6614 (4×4)<sup>6)</sup>

CM6614는 1960년 이탈리아에서 제작하여 1977년 한국에 도입한 도심지 방어용 차량으로 병력이 탑승한 상태에서 관측과 부분적인 전투가 가능하다. 이 차량은 최근까지 일부 부대에서 운용하다가 도태되어 폐차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재는 대전 현충원 보훈장비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 2.5 이라크 파병 차륜형 전투차량 (4×4)<sup>7)</sup>

2003년 이라크 전에 파병된 차륜형 전투차량은 현지의 도로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으로서 탑승 전투가 가능하도록 K200에 장착된 큐폴라와 총안구를 설치하는 등 군용화 개조작업을 하였다.

### 2.6 아프가니스탄 파병 지뢰방호차량<sup>8)</sup>

2010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차량으로 구매하였다.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차량은 반드시 지뢰, IED 및 EFP에 대한 방호능력을 구비해야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운용하고 있던 성능이 입증된 Maxx Pro Dash(MRAP)를 결정하였다.

## 3. 미래전 양상 기반 군용차량 발전방향<sup>9)</sup>

미래전은 기술 발전에 따라 NCW 수행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의 재래식 및 WMD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육해공군의 합동 전투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고성능의 기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 시 운영유지비용 누적 절약효과와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 4. 군용차량 개발계획<sup>10)</sup>

군은 운용중인 군용차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기체계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미군의 JLTV와 차이는 있지만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신개념의 군용차량을 개발하고 있다.<sup>11)</sup>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용차량은 소형전술차량과 차륜형 전투차량(6×6, 8×8)으로서 작전책임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항속거리가 증가하고 도심지에서의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sup>12)</sup>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기본형 차량은 다양한 운용개념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군용차량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동성, 방호력 등 기본 성능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생존성 및 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다섯째, 전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도록 개발한다.

#### 5. 일반차량과 군용차량의 공용화 사례

미국은 1980년대 AM제너럴이 개발한 험비(HMMWV)를 전술·지휘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용으로는 험머(HUMMER)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운용되고 있다. 험머는 2010년 미국의 경제위기와 고유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해 9월까지 미국시장에서만 2만284대가 판매되었다.<sup>13)</sup> 비록 전년도인 2009년의 같은 기간 보다 무려 21%나 감소한 판매량이지만, SUV의 전반적인 인기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유지비가 많이 드는 험머의 판매가 지속되고 있음은 이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함을 알 수 있다.

독일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클래스를 매년 판매량의 20%를 군용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9000여대 판매량 가운데 2250여대를 군용으로 공급하고, 대부분 일반용으로 공급했다.<sup>14)</sup>

영국의 랜드로버와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 도요타의 랜드크루저 등도 군용과 일반용으로 혼용되고 있다.<sup>15)</sup>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K131은 일반용으로 민간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군에 납품된 K131은 8,502대이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용으로 보급된 레토나는 28,019대이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2013.4.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상반기경에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특히, SUV 차량의 증가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 6. 2013 ~ 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sup>16)</sup>

현재의 방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목표를 이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세계 수준의 방산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국방과학기술 선진 8위권에 진입 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방산시장 경쟁 촉진, 방산기업 핵심역량 강화, 방산제품 품질 안정화, 국제 방산시장 진출 확대 등 4대 정책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1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6.1 방산물자·업체지정제도 개선

방산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방산물자에 대하여 1물자-다업체의 방산업체 복수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사품목에 대해서는 방산물자를 그룹으로 지정하여 방산물자의 품질과 조달업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방산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진입이 용이해진다. 단, 전략·비닉무기 등과 같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수적이고 기술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품목은 안보전략 물자로 분류하여 수의계약 및 방산원가를 적용한다.

## 6.2 방산원가제도 개선

실발생원가를 인정해주는 방산원가제도의 특혜·보호 요소를 줄이고, 제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산업체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확정계약을 활성화한다. 다만, 일부 경쟁조달이 어렵고 시장성·경제성이 부족한 안보전략물자에 한하여 적정 비용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조달업체를 확보하는 한편 주계약업체의 비용이 중소기업 위주의 협력업체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방산업체가 수출경쟁력을 갖춰 국제시장에서 점유율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R&D 투자와 수출촉진활동 비용에 대한 원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운영 및 관련법규를 마련하여 원가산정 업무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3 국방규격의 상용전환 확대

유사시에도 군수물자의 조달을 원활히 하고, 민간부문의 신기술 도입을 원활히 하며, 경쟁조달을 통한 원가절감·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의 상용전환을 확대한다. 또한 성능형 규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 6.4 방산정보 공유 활성화

국내 방위산업 생산 및 기술기반 현황, 국방자산의 소유 및 운용현황 등에 대한 방위산업기반조사를 정례화 하여 분야별 국내 방산기반 분석 및 경쟁방안 연구, 방산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토록 한다.

방산기반조사의 결과는 공개 본을 발간하여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민수업체의 방산참여를 유도한다.

방위산업 관련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기준을 정립하고, 통계청을 통한 국가통계 승인 등을 추진한다.

방산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합방산정보시스템과 국방표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6.5 방산전문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전문화·대형화가 필요한데, 이는 시장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혜택, 안정적 내수 물량 담보 등을 통하여 기업 자율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전문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체계업체가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고 국방분야 핵심소재 및 민군겸용기술 등의 발굴을 통해 방산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방산 중소·중견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방산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 6.6 민간주도의 국방 R&D 체계 확립

방산업체의 자발적 기술혁신과 개발비 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신규 연구개발 사업 시 ADD 주관을 억제하고 업체주관을 확대하며,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련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개발수준(TRL)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업체주관으로 변경토록 한다.

민간의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 촉진 및 고품질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복수업체 연구개발을 활성화 한다.

## 6.7 국방기술소유권 제도 개선

민간에 의한 국방기술 향상과 투자촉진을 위해 안보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방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이관한다.

기반기술에 해당하며 무기체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국방 기초연구 분야는 민간에 대한 기술소유권을 인정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 개선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 6.8 방산핵심기술·부품개발 추진

핵심기술은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개발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미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

는 실질적인 핵심기술·부품이 국산화되도록 한다.

첨단 무기체계 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형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단기에 신속히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됨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부품은 세계 시장에서 생산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고, 개발 성공 시 부가가치의 창출이 높고, 부품 독자 수출도 가능한 품목을 선정한다.

### 6.9 총 수명주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점부터 발생 가능한 품질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강화하고 사전 품질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개발간 기술성숙도평가(TRA)와 제조성숙도평가(MRA)를 실시한다. 또한 성능에 주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부품·구성품을 선정하고, 정부에서 인정해준 공인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시험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양산·운용단계에서는 품질검증을 강화하고 운용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장비의 초도생산품에 대한 전력화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평가팀이 6개월 이상 야전환경에서 운용 성능을 평가하며, 평가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규격변경 등 후속조치를 통해 다음 양산계획에 반영하여 하자를 최소화시킨다.

### 6.10 국방품질경영 정착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관리와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무기체계 개발업체 선정 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시험장비와 시설을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바탕으로 시험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부품, 구성품 단위에 대해서도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품질검증체계를 구축한다.

### 6.11 구매국 특성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외국과의 방산협력 협정은 실질적 협력 창구인

방산협력 공동위의 근거가 되며 정부의 보증과 지원 차원에서 방산수출을 촉진한다. 현재 32개국과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점점 확대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협력 채널 구축은 물론 합동훈련과 교육 등의 군사교류와 경제지원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방산수출 추진 시 향후의 국내 획득사업과 연계하여 대응구매 및 국제공동개발 등을 제안하여 수출협상력을 제고한다.

### 6.12 주력 수출품목 육성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세계시장 규모, 경쟁기종 대비 경쟁력, 수출 추진현황 또는 실적,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주력 수출품목을 선정한다. 주력 수출품목이 결정되면 품목의 세계시장 분석, 입찰정보 획득, 마케팅, 협상, 계약, 후속군수지원 등 사업 전 단계의 체계적 지원 및 성과관리를 민·관·군 합동으로 추진한다. 주력 수출품목에 대하여 수출용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구매국 맞춤형 성능을 구비하고 한시적으로 기술료 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한다.

## 7. 군용차량 생산량 증진 방안

내수가 한정되어있는 현상황하에서 방산업체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새롭게 개발하는 군용차량의 생산량을 높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수요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서 군용차량으로의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 차량을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도 보급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 7.1 군용차량으로 내수 증진 방안

군용차량으로서의 소요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된 물량으로서 방산 업체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내수물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3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군용차량을 일정기간 사용 후 순환하는 것으로서 군에서 3~5년 주기로 사

용을 하다가 일반에게 불하하는 방법이다. 이는 군의 전투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후방지역 및 도심지역에 위치한 부대에서 운용하는 일반 행정용 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후방이나 도심지역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탈거하여 운용하는 것인데, 그 예는 방탄모듈을 들 수 있다. 셋째, 지속적으로 계열화를 확대시켜나가는 방법이다. 최초 계획된 소요량에 추가하여 신규 개발되는 무기체계의 탑재와 현재 궤도형에 탑재된 무기체계를 운용용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군용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7.2 군용차량으로 수출 증진 방안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군용차량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량의 성능, 방호능력, 구동방식, 장애물 극복 능력 등등이 상이할 것이며, 이러한 구매국의 수요를 맞추주는 것이 수출 성공의 열쇠이다. 그러므로 구매국이 원하는 바램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발단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즉 기본형에 장착되는 부품 및 구성품을 모듈화 하여 장·탈착이 용이하고 관리도 수월하도록 해야 한다.

### 7.3 일반차량으로 생산량 증진 방안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SUV는 주 5일 근무제와 대체 휴일제 등과 더불어 우리의 여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앞의 5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SUV는 선호도가 매우 높고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현재의 SUV보다 장애물 극복능력이 더 우수한 것을 희망하는 메니아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군용차량을 일반용으로 개조하기 용이하도록 부품과 구성품을 모듈화 한다면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격 면에서도 경제성이 있도록 개발해야 하며 디자인 면에서도 세련미가 있어야 한다.

이 차량은 정부차원에서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과 홍보는 물론 현재 업체별로 실시 중인 수출전략에 포함·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7.4 지속적인 진화적(성능개량) 개발 추진

개발되는 차량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과거 표준차량의 경우 성능개량을 하였는데, 엔진출력 향상과 일부 편의성 위주 개량을 한 사례가 있다. 미군의 경우 아브라함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를 수회에 걸쳐 성능개량을 하였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더 성능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7.5 기타 생산량 증진 방안

우리의 자동차 기술은 세계 선진권 수준으로서 국제시장에서도 매우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용차량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성능 좋은 차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량에서 이미 검증된 부품과 구성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비와 개발기간, 노력을 절약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민간용으로 개발하는 일반형의 생산량 증진을 위해서는 고객확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메니아 층에 대한 공략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동시험장을 개방하고, 또한 전방지역에 Off-road 경기장 조성을 지원하여 주기적으로 경기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차량의 정비·부품 보급에 있어서도 군용과 일반용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차량의 경우 전국적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는 정비업체를 최대한 이용한다면 군의 운영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시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8. 결 론

1948년 한국군 창설이후 다수의 군용차량을 운용해왔다. 주로 미군차량을 운용하다가 70년대 후반부터는 국산차량을 생산하여 운용을 하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이를 다시 성능 개량하여 현재까지 운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성능개량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 차량 자체가 구식인데다 진부화 된 기술의 차량으로서 미래전을 대비하기에는 작전운용 면이나 성능 면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한국군은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군용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기술은 가히 선진적이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 무기체계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하는 군용차량의 경우 이미 민간분야에서 선진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엔 군의 행정과 기술이 민간으로 전수되는 경우가 흔했었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 민간에 앞서있는 기술을 군에 접목(spinner)한다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군용차량의 경우 민간에서도 사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한국군의 K131 지프는 레토나로, 미군의 험비는 험머로, 영국은 랜드로버, 독일은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다의 랜드크루저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한정된 내수시장을 보고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려야 가능하다. 수요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형으로의 보급 확대와 수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군용차량을 개발함에 있어서 군용차량 자체로 수출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를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도 고려를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이라는 방위산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12개 세부 과제를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군용차량의 생산량 증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첫째, 군용차량으로 내수증진 방안
- 둘째, 군용차량으로 수출 증진 방안
- 셋째, 일반차량으로 생산량 증진 방안
- 넷째, 지속적인 진화적 개발 추진
- 다섯째, 기타 생산량 증진 방안

## References

1) B. Lee, “Priority Decision Based on Users’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Vehicles,” Transactions of KSAE, Vol.18, No.6, pp.122-123, 2010.

2) B. Lee, “Analysis of Requirement Capability of Military(Fighting) Vehicles,” KSAE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pp.1894-1895, 2011.

3) ROKA, Weapon Systems of Surface, <http://www.army.mil.kr/gbbs/mukihome/mugi/mg19.jsp>, 2013.

4) KIA MOTORS, Military Vehicles Report, Report for DAPA, 2011.

5) B. Lee, “Priority Decision Based on Users’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Vehicles,” Transactions of KSAE, Vol.18, No.6, p.123, 2010.

6) CM6614, <http://wkyfyd0188.blog.me/150028249280>, 2008.

7) B. Lee, A Selection Model of the Development Factors of Military Vehicl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Ph. D.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p.36, 2010.

8) B. Lee, A Selection Model of the Development Factors of Military Vehicl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Ph. D.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p.37, 2010.

9) B. Lee, A Selection Model of the Development Factors of Military Vehicl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Ph. D.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pp.32-34, 2010.

10) B. Lee, “Analysis of Requirement Capability of Military(Fighting) Vehicles,” KSAE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pp.1896-1897, 2011.

11) H. Eu and H. Yoon, The Case Study of Tactical Vehicles Development & Acquisition of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2011.

12) B. Lee, A Selection Model of the Development Factors of Military Vehicl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Ph. D.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p.34, 2010.

13) Hummer H3, <http://matsuri.kr/120109907448>, 2010.

14) Chosun Biz, Military Tactical Vehicles, India's Industry Product The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8/2012112802](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8/2012112802)

- 070.html, 2012.
- 15) Military Vehicles of the World, TOP 10, [http://blog.naver.com/smlimy?](http://blog.naver.com/smlimy?Redirect=Log&logNo=80116575059)
- 16) DAPA, 2013 ~ 2017 Basic Plan for Defense Industry Promotion, 2012.